

OECD 농업위원회 자문회의 참석결과

('10.1.15, 파리)

□ 참가자 : KREI(정호근 부연구위원, 배종하 초빙연구위원)
농림수산식품부(서은수 서기관)

□ 회의내용 및 결과

(1) 회의 목적

- 각료회의에서 논의의 바탕이 되는 이슈와 질문을 담고 있는 이슈보고서(issue paper)와 각료회의 결과를 담게 될 결과문서(output document)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 확정하기 위함

(2) 각료회의 이슈보고서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경제적 불확실, 식품 등 최근 글로벌 이슈를 대체로 반영하였다는 평가
 - 불분명한 표현 수정 요구
 - 녹색성장, 기후변화, 물관리, 지역개발 등에 대한 관심 표명

(3) 각료회의 결과문서

- 회원국들은 결과보고서를 각료회의에 제출할때에는 보다 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
 - 회원국의 관심사가 우선 반영되고 후단에 토론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형식 제시
- ⇒ 사무국은 1. 29일 회의를 통해 마무리 지을 예정(금번 회의에 논의 수정된 내용은 26일 배포 예정)

OECD 농업위원회 자문회의 참가결과

2010.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I. 회의 참석개요

□ OECD 농업위원회 자문회의(1.15. 파리)

* 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부연구위원, 배종하 초빙연구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서은수 서기관,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현지참석)

《검토의제》

- ① 2010 OECD 각료회의 이슈보고서 논의
 -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내용 검토
- ② 2010 OECD 각료회의 결과문서 초안 논의
 - 세계 농식품 시스템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
 -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OECD의 역할
- ③ 기타 각료회의 조직 및 의전 등

II. 논의결과

《종합》

□ 금번 OECD 농업위원회 자문회의는 각료회의에서 논의의 바탕이 되는 이슈와 질문을 담고 있는 이슈보고서(issue paper)와 각료회의 결과를 담게 될 결과문서(output document) 초안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이것을 확정짓기 위한 자리였음

(1) 각료회의 이슈보고서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경제적 불확실, 식품 등 최근 글로벌 이슈를 대체로 반영하였다는 평가
 - 불분명한 표현 수정 요구
 - 녹색성장, 기후변화, 물관리, 지역개발 등에 대한 관심 표명

(2) 각료회의 결과문서

- 회원국들은 결과보고서를 각료회의에 제출할때에는 보다 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
 - 회원국의 관심사가 우선 반영되고 후단에 토론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형식 제시
- ⇒ 사무국은 1. 29일 회의를 통해 마무리 지을 예정(금번 회의에 논의 수정된 내용은 26일 배포 예정)

《세부 논의내용》

(1) 이슈보고서

□ 사무국 발표내용

- 장관회의의 각 session에서 논의의 바탕이 되는 이슈와 의문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최근의 글로벌 이슈인 i) 기후변화, ii) 소비자 수요(비만/영양부족, 바이오에너지), iii) global food chain, iv) 혁신(+교육훈련), v) 경제적 불확실성 등과 관련된 현황과 지금까지의 대응등 농식품시스템의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 이러한 바탕 위에서 앞으로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OECD의 역할 등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

□ 관련 논의 내용

- 스위스 : 이슈보고서 내용에 OECD 역할과 녹색성장 부분을 좀 더 비중있게 보완 요구
- 호주 : #12(자연자원의 압력)에 최근 코펜하겐 결과 반영 필요

- 스페인, 영국, 네델란드 : 현재 제시된 이슈 범위가 광범위하여 보다 핵심이슈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장관에게 중요한 이슈 제공 필요
- 미국, 멕시코, 노르웨이 : 녹색성장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 요구
- 덴마크 : 농촌개발 정책관련 문구 삽입필요
- EC : 농업부분이 타 산업과 소득이 비슷하다는 #2의 마지막 문구 수정 필요(노르웨이, 그리스 동의, 호주, 캐나다 이견).
- 뉴질랜드 : 물관리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일 본 : OECD가 회원국을 어떻게 돕느냐뿐만 아니라 OECD 기능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필요
- 브라질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금융협력이 필요

☐ 사무국의견

-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가지고 1월 29일 회의시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임

(2) 결과문서 초안(output documents)

☐ 사무국 발표 설명

- 2010 장관급 각료회의후 결과문서로서 장관들로 하여금 농식품 분야의 미래에 대한 공유된 비전과 OECD 작업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항들을 반영코자 한 것으로서 각료회의 전까지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할 예정임
- 결과문서는 1998년 합의된 것을 근간으로 하여 환경 변화에 맞게 업데이트된 『정책원칙』과 정부가 OECD로 하여금 미래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정책정보, 분석, 조언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OECD 가이드스』를 구성됨

□ 관련 논의 내용

- 한국 :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조, 농가소득 안전망에 대한 문구 추가, #5는 너무 길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문장을 추가하고, 농업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농업 투자를 적극 장려(encourage)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 있음
- 프랑스 : 1998년 이후 중요한 변화로 식량안보, 가격불안정관련 증가,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식량문제와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의 상반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언급이 프린스플(원칙)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함.(스위스 동조)
- 스페인 : 농업인과 가격 불안정성, 환경변화에 대한 공공정책 역할 언급 필요
- 핀란드 : 일반적으로 문구가 너무 두루뭉실하고 표현이 보다 ambitious 할 필요가 있으며 물과 관련한 이슈,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품시스템에서 이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호주 : 결과보고서는 보다 초점이 잡혀 있어야 하고(간결하고 너무 세세한 내용 불필요)짧지만 정곡을 찌르는 보고서일 필요가 있음(문구 표현이 ambitious해야 한다는 핀란드 발언에 동의)
- 일본 : 1998년 이후 변화에 대한 언급이 먼저 있어야 하고 문구는 핵심적이고 간결할 필요
- 멕시코 : 기후변화와 농업의 역할, 물관리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캐나다 : 호주의견에 많은 부분 찬성하고 다른 국제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문구가 필요(예: FAO)
- 노르웨이 : 공공재 제공 부분이 농업의 중요한 역할이며 핀란드

가 지적했듯이 식품시스템에서 효율성과 배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언급 필요

- 독일 : 문구가 대체적으로 마일드하고 DDA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녹색보호주의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견해가 있고 다른 접근방식이 있음을 참고해야 함
- 미국 : 목표와 원칙이 구분되어있지 않음
- 벨기에 : 농업인에 대한 언급과 OECD가 생각하는 녹색성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
- 이스라엘 : 물관리가 중요하며 위험관리(자연재해, 국제적 투기, 수요의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 의견

- 1998년에 수많은 논의과정이 있으면서 벌써 목표와 원칙에 보고서에 혼재되어 나타나 있고 이러한 과정을 다시 밟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임. 이에 과거에 정해진 원칙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여기에 추후 변화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내용을 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임.
- 결과문서는 최대한 회원국의 제안을 반영할 것임. #5는 중요성 순서가 아니라 논리순서로 갈 것임.
- 회원국들은 결과보고서 파트2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기를 바라며 이것과 오늘 토론된 파트1의 내용을 가지고 26일까지 수정된 결과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임.
- 1월 29일 재차 회원국들과 모여 이슈페이퍼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